

21세기를 여는 미래대학 성신여자대학교

이 속 자 성신여대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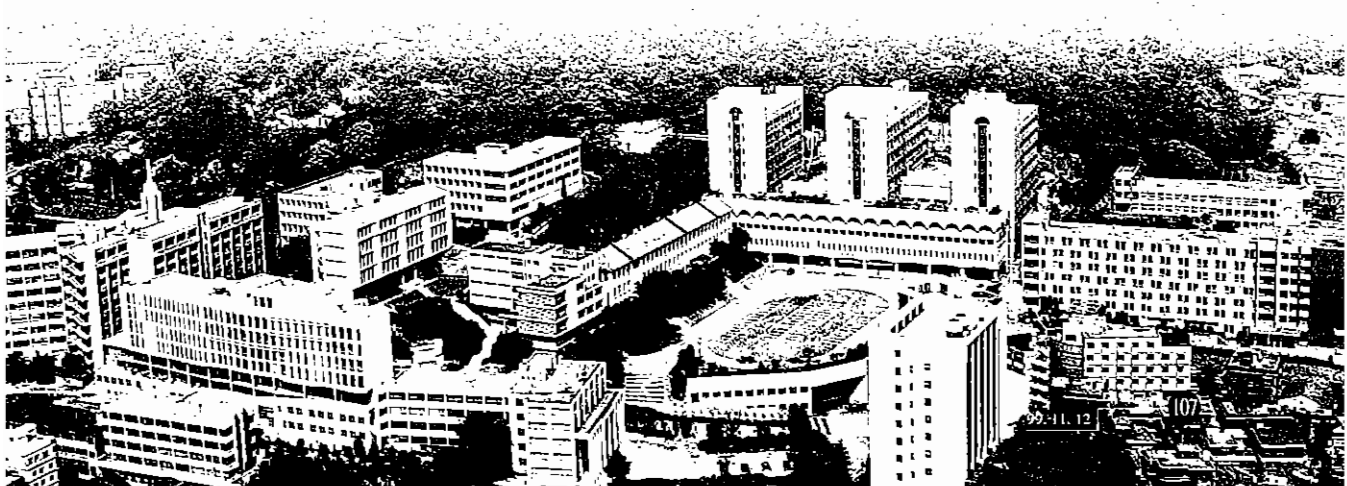
1. 적정 규모의 내실있는 성신여자대학교

1936년 윤정 리숙종 박사는 민족갱생과 여성지위의 향상을 건학이념으로 성신여학교를 설립하였다.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전문인력의 배출과 여성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성신의 교육은 성장을 거듭하여 1965년 성신여자 사범대학으로 제2의 창학을 하게 된다. 그후 1981년 7 월에는 짧은 역사를 딛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결과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는 감격을 맞았으며, 중단 없는 발전을 통해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적정 규모의 내실있는 명문사학을 지향하고 있는 본

대학은 총장을 위시로 하여 총장 산하에 학사 및 대학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각종 위원회와 전체교수회의를 두고 있으며, 인문과학대학을 비롯한 7개 단과대학, 대학원과 4개의 특수대학원, 13개 부속기관, 12개 부설연구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교육·학사·행정지원을 위하여 교무처, 2부 교학처, 연구교류처, 학생처, 기획처, 총무처 등 6개처 13개과를 두어 대학이 본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본교는 대학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육기본 시설, 교육지원 시설, 실험실습 설비, 후생복지 시설에 대한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육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최근까지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해



왔으며, 그 결과 총 24개동 89,100㎡의 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연구실은 물론 강의실 실험실습실 및 기타 부속실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다기능 복합건물 수경관, 첨단 강의시설을 완비하고 성신의 강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강의 전용 건물인 난향관은 도시형 인텔리전트 캠퍼스 구축을 위한 성신의 중단 없는 노력의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2. 덕(德)과 지(知)의 하모니

본교는 성신·지신·자동을 교육이념으로, 전인적 교양인, 창조적 전문인, 자율적 실천인을 교육의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성신'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인격자로서의 성장을 뜻하는 것이고, '지신'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 자기 개발과 개척의 안내자가 되도록 함이며, '자동'은 창조와 주체성을 일컫는 것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이념으로부터 도출된 본교의 교육목적은 전인적



교양인, 창조적 전문인, 자율적 실천인으로 '전인적 교양인'은 균형있는 교양과 도덕적 품성을 통한 합리적인 윤리관과 공동체 의식의 발현을 뜻하는 것이며, '창조적 전문인'은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통해 자신이 처한 환경을 개선 발전시킬 수 위한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자율적 실천인'은 자아실현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과 인류사회에 공헌토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성신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은 성신교육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며, 성신의 교육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3. 교육시스템

1) 최소전공인정 학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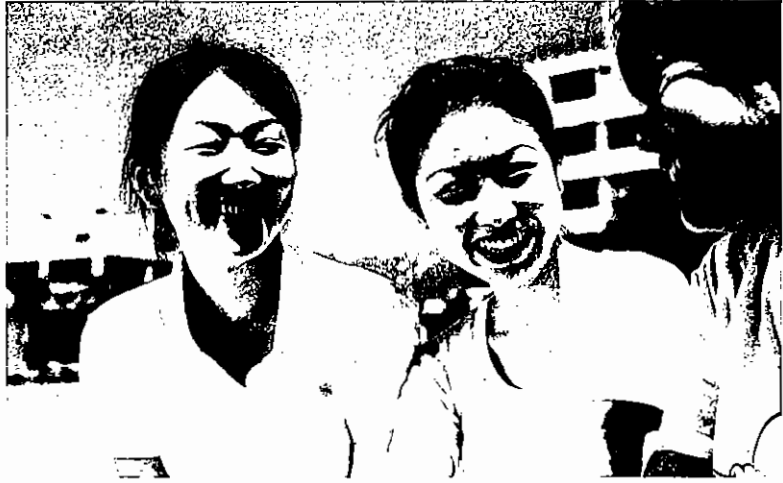
학부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전공선택의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8학년도 신입생부터 최소전공인정 학점제를 실시하여 재학기간중에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전공인정 학점제는 전공과정을 70학점에서 80학점까지 이수하던 것을 대폭 축소하여 45학점 이상만을 이수하도록 하고, 자유선택으로 전공심화과정,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 등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2) 가상대학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의 공간에서 시·공간의 제약에 구애됨이 없이 이루어지는 가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문적 전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갖춘 12개 참여대학(성신여대, 강릉대, 고려대, 공주대, 동덕여대, 부산외대, 부경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인하대, 제주대, 충북대)과 전문기술인력을 겸비한

참여기관(삼성SDS, 중앙일보)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OCU를 운영하고 있다.

수업방법은 매학기 12개 대학에서 전공 및 교양과목을 100과목 이상 개설하고 있으며, 2과목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기말 시험을 제외한 수업에 관련된 강의, 토론, 질문, 평가 등 모든 과정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3) 특별교육프로그램 - 국제화 정예요원 양성

“국제화 정예요원과정”은 각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성신인에게 필수 자격요건인 영어를, 대학입학과 동시에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성신을 대표하는 국제화 전문요원으로 양성하는 과정이다. 1주 10~12시간, 학기당 180시간 이상, 4학기 총 720시간 이상 독해, 청해 등 이해과목과 회화 작문 등 영어 학습의 전영역을 교육한다. 영어권 국가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교수진은 매학기 시작 1개월 전부터 워크숍을 통하여 한 학기 동안 진행될 수업과 관련한 강의준비를 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 과목별 전공교수를 정하여 완벽한 강의를 하고 있다.

4) 장학제도

신입생 및 재학생에 대한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본교의 장학제도는 성적우수 장학금을 비롯하여 운동재단, 각과 동창회 장학금 등을 포함한 수십종의 기금장학금, 문학·어학·체육특기자 등에게 주어지는 특기자 장학금 등으로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이 전국 여자대학교 중 최고 수준이다.

특히 입학성적우수학생에게는 학업보조비, 외국대학교로의 어학연수, 대학원 진학시의 학비보조, 박사학위 취득 후 교수 공채시 우선 순위배정과 같은 각종 혜택과

특전이 주어지고 있고, 소녀가장 장학금, 자매 장학금, 보훈 장학금 등을 지급하여 학업성과 고취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있다.

4. 교육개혁 및 연구지원

본교는 인간화 교육, 전문화 교육, 정보화교육, 국제화 교육을 특성화 정책으로 하여 정체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각각의 정책은 인간화교육 - 교육의 내실화, 도덕적 품성의 함양,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의 강화, 전문화교육 - 전공교육의 심화, 학과별·대학별 특성화교육 및 학제적 연구,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을 강화, 정보화교육 - 정보화시대의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제간 공동연구의 활성화, 전산교육의 강화, 시청각교육의 내실화, 국제화교육 - 외국어교육의 강화, 인류공동체의 의식제고, 외국대학교와의 학술 및 교수·학생의 교류를 확대 등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열린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대학은 학점인정체계의 다양성, 최소분야 및 새로운 분야의 교과목 편성 등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시스템 운용하고 있으며, 국제화 정예요원 양성과정, 학문적 특수성과 실효성을 갖춘 연구소 개설 등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본교는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비, 연구인력 등 다각적인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연구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 2회에 걸쳐 연구과제를 공모하며, 연구과제별로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연구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파견연구를 권장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학술지 연구논문의 기고를 권장하기 위해 특별과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구관리의 측면에서 교수업적평가제, 연구인센티브제, 교수연구년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5. 사회로의 열린교육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달라진 교육환경 속에서 점차 중시되고 있다. 본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 사회교

육원을 설치하여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우리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사회와 공유하고 있으며, 교수, 학생의 대 사회봉사 영역을 개발하여, 산·학·연을 포함한 대학의 대 사회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99년에는 문화적 흐름에 대처하는 문화의식의 표현으로 실내악단 성신타리오를 창단하였다.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 자원의 사회적 공유와 음악계의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성신타리오는 현역 연주자로 활동하며, 본교 음악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도 성신미술상의 제정, 성신문예백일장, 전국미술실기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21세기에 내실있는 명문사학으로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성신의 전구성원들은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